제8장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라

도입

오늘날 정치가들의 국민을 위한 정치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혹시 자기 이익을 위해 정치하지는 않는가? 국민들이 감시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옛날 군주가 다스린다고 하여 군주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적어도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려는 생각은 했다. 백성이 편안하지 못하면 결국 왕조 자체가 버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렸어야 했을까? 선생은 여기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다. 임금과 백성이 서로 필요로 하는 도리,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 백성을 두려워 하는 도리, 혈구(絜矩 :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을 이해하는 것)의 도리, 세금을 가볍게 거두는 도리, 부역을 가볍게 하는 도리, 형벌을 신중히 하는 도리, 의(義)와 이치를 판별하는 것, 재물을 절약하고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생업을 만들어 유지하는 것, 군정(軍政)을 개혁하는 것 등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분량이 많아 간략하게 소개한다.

본문

[서경]

순(舜)이 우(禹)에게 명하기를, "사랑할 만한 이는 임금이 아니겠으며, 두려워할 만한 이는 백성이 아니겠는가? 백성은 임금이 아니면 누구를 떠받들며, 임금은 백성이 아니면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지키겠는가? 공경하여 너의 지위를 조심스럽게 지켜 원할 만한 것을 경건하게 닦아라. 사해(四海)가 곤궁해지면 하늘의 녹(祿)이 영원히 끊기리라."

[맹자]

맹자(孟子)가 말하였다. "늙어서 아내 없는 것을 환(鰥)이라 하고 늙어서 남편 없는 것을 과(寡)라 하고, 늙어서 자식 없는 것을 독(獨)이라 하고, 어려서 아비 없는 것을 고(孤)라고 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곤궁한 자들로 호소할 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왕(文王)이 정령(政令)을 발하여 인정(仁政)을 베풀 때에는 반드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돌보았습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부자(富子)들이야 괜찮지만, 괴롭고 외로운 사람들이 불쌍하구나.' 하였다."

[서경]

『오자지가(五子之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남자나 어리석은 여자라도 다 나보다 나으리라. 나의 만백성을 대하되 마치 썩은 새끼로 여섯 마리의 말을 모는 것같이 두려워하니, 남의 위에 있는 사람이 어찌 공경하지 아니하겠는가?"

〈주석〉 채씨가 말하였다. "임금이 인심을 잃으면 독부(獨夫 국민에게 악정을 행하여 버림받은 군주)가 된다. 독부가 되면 어리석은 남자나 어리석은 여자라도 다 나를 이길 것이다. 썩은 새끼는 끊어지기 쉬워서 말을 몰 수가 없는데, 이것으로 매우 두렵다는 것을 비유하였다."

[서경]

문왕(文王)은 감히 놀이와 사냥을 즐기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에서 정당한 공납(供納)만을 받았다.

[예기]

『왕제(王制)』에, "백성을 부리는 일은 1년에 3일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주석〉 진씨(陳氏)가 말하였다. "민력(民力)을 부린다는 것은 성곽(城廓)·도로(道路)·구거(溝渠 도랑)·궁묘(宮廟)를 짓는 일 같은 유인데, 주(周)나라 예(禮)에, 풍년에는 3일, 보통 해에는 2일, 흉년에는 1일뿐이다. 군역(軍役)은 이 제도에 구애되지 않는다."

[춘추곡량전]

재물이 다하면 원망하고, 힘이 다하면 한탄한다.

〈주석〉 진씨(眞氏)가 말하였다. "이것은 백성의 상정(常情)이다. 그러므로 성스러운 임금은 부세를 경감하여 그 재물을 탕진(蕩盡)하게 하지 않고, 부역을 감하여 그 힘을 고갈하게 하지 않는다."

[서경]

고요(皐陶)가 말하였다. "임금님의 덕에 허물이 없어서 아래로 신하를 소탈하게 대하시고, 백성을 너그럽게 거느리시며, 형벌을 자손에게까지 미치지 않고, 상은 후세에까지 뻗치게 하셨으며, 모르고 지은 죄는 커도 용서하시고, 일부러 저지른 죄는 작아도 벌하셨으며, 의심스러운 죄는 그 형을 가볍게 하시고, 의심스러운 공은 그 상을 무겁게 하셨으며, 죄 없는 이를 잘못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허물을 택하셨습니다. 삶을 좋아하는 덕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흠뻑 젖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유사(有司)의 법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율곡의 풀이]

부세를 적게 하는 것, 부역을 가볍게 하는 것, 형벌을 삼가는 것 세 가지는 백성을 편하게 하는 큰 요령이다.

[대학]

재물을 생산하는 데에는 큰 방도가 있으니, 생산하는 사람은 많고 놀고먹는 자가 적으며, 일하는 사람은 민첩하게 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천천히 하면 재물은 항상 풍족할 것이다.

〈주석〉 여씨(呂氏)가 이르기를, "나라에 노는 백성이 없으면 생산하는 이가 많을 것이요, 조정에 요행으로 얻은 벼슬이 없으면 놀고먹는 자가 적을 것이며,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일하는 것이 민첩할 것이요, 수입(收入)을 헤아려서 지출(支出)한다면 소비가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일정한 생업이 없더라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반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그 때문에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변치 않는 마음이 없다면 방탕한 짓이나 사악(邪惡)한 짓 등을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뒤에 뒤따라 처벌한다면, 이것은 백성들에게 그물질하는 것이니,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앉아 백성들에게 그물질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날 어진 임금은 백성의 산업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있어서 풍년이 들면 일 년 내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흉년이 들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따라가기가 쉬웠습니다."

[율곡의 풀이]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므로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 것이라, 백성이 하늘로 삼는 것을 잃으면 국가가 의존할 데를 잃어버리니,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임금의 정치는 오직 백성에게 부모 노릇하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 민력(民力)을 늦추어 주고 민산(民産)을 후하게 해 주어서, 백성들이 하늘로 여기는 바가 넉넉하여 그 본연의 착한 마음을 보존하게 해 줄 뿐이다. 임금으로서 이런 정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慾心)이 많은 데에 얽매여 스스로 절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 부모는 자식을 충심으로 사랑하여 그가 즐거워하는 것을 이루어 주고, 그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 주어 그 극진한 것을 다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임금이 진실로 백성에게 부모 노릇을 하고자 마음먹는다면, 한 백성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도 다 나의 어린 아기가 우물로 빠져들어 가는 것 같이 여겨, 미친 듯이 달려가서 기를 쓰고 이것을 구제하려 할 것이다. 누가 어린 아기가 우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태연히 웃고 담화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옛날 성스러운 임금은 그 직책이 백성들에게 부모 노릇하는 곳에 있는 줄을 깊이 알았다. 그러므로 애쓰고 안타깝게 여겨 밥 먹을 겨를도 없고 마음은 언제나 이 백성들에게 있었을 뿐이다. 그 백성의 힘을 아끼기를 마치 살을 베어 내는 듯이 어렵게 여기고, 그 백성의 생산에 힘쓰기를, 마치 배고플 때 먹이를 구해 주고, 그 폐습(弊習)을 혁신하기를 마치 급한 병에 약을 복용하듯이 하여, 반드시 그 백성들을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한 뒤에야 마음으로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러므로 백성은 은혜가 골수에 스며들고 사랑이 폐부(肺腑)에 맺히어, 임금을 위하여 죽는 것을 단 엿을 먹는 것보다 더 쉽게 하였으니, 국가의 형세가 어찌 오래도록 안정되지 않았겠는가?

임금에게 부모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도 사랑하고 받들 생각이 없고, 굶주림과 추위가 몸에 절박하기 때문에 예의가 다 상실되어 그들이 임금 보기를 승냥이나 호랑이·원수와 같이 여기고, 임금이 된 이도 또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누구도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컴컴한 가운데 화(禍)의 싹이 잠복해 있어도 경계할 줄 모르다가,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변이 일어나고 소홀히 여기던 데서 환란이 생겨 필부필부(匹夫匹婦)가 다 강적이 된 뒤에는 후회한다 하더라도 이미 소용이 없었다.

그러므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은 자기를 편안히 하는 것이다. 대개 백성을 편안히 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이(利)를 일으키고 해(害)를 없애 그들로 하여금 그 삶을 즐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고루한 것을 그대로 따르고 그릇된 것을 그대로 지켜 그럭저럭 모면하면서 일폐(一弊)도 혁신하지 못하고 일정(一政)도 들어 쓰지 못하고서, 다만 아침저녁으

로 간절하게, "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 한다."고 말로만 부르짖고 명령한다면, 이것은 성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백성들은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지극히 신령(神靈)하니, 어찌 말로 속일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한 것은 지금의 임금도 아는 바이다. 알고도 구제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원망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사해가 곤궁해지면 하늘의 녹이 영원히 끊어진다."는 『서경』의 말뜻은 임금이 실정을 해서 백성들이 가난해지면 하늘로부터 받는 임금의 녹이 영원히 끊어진다는 말이다.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말에서 생각하고 고쳐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2. 2014년 초 우리나라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으로 매우 떠들썩했다. 사건의 내용은 어머니의 부상으로 소득이 없어진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사건으로, 병을 앓고 있었던 30대의 두 딸이 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해 벌어진 참극이다. 이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하였지만, 현재 세 모녀 사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리에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친애하는 국민"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친애(親愛)란 친밀히 사랑하는 것 또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다. 여러분도 친애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또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3.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경향신문이 창간 69주년을 앞두고 페이스 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권력은 00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재시하고 빈칸을 채워달라고 했더니 '자본'이라고 한 응답이 30% 정도였고, '대통령'이라고 한 답이 20% 정도였다고 한다. 헌법대로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었다. 여러분은 빈칸을 어떤 말로 채우고 싶나요?

4. 부역(賦役)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보수 없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노역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병역은 나라마다 제도를 달리하는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 합의에 따른 자율적인 의무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국민의 의무로서 원칙적으로 의무병역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두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병역제도를 두고 유행하는 말이 있다. '유전면제(有錢免除), 무전복무(無錢服務)'로 돈이 많거나 고위직에 있는 부모 등 배경이 있는 집 자식들은 손쉽게 군 면제를 받고, 서민의 자녀들이 이들의 빈자리를 대신 메우고 있는 현실을 꼬집는 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4급 이상 공직자 26명의 자녀들 가운데 30명이 국적 포기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70개 부처·기관의 4급 이상 남성 공직자 2만4980명 중 10.3%인 2,568명이 병역 면제이며, 남성 국회의원 250여명 중 53명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심지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6명이 병역면제를 받았다. 아무래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말이 좀 무색해 지는 것 같다. 다시 신성한 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노 이 무 처 왈 환 　 노 이 무 부 왈 과 　 노 이 무 자 왈 독 　 유 이 무 부 왈 고
老而無妻曰鰥이요 老而無夫曰寡요 老而無子曰獨이요 幼而無父曰孤라 (『맹자』).

한자 풀이와 해설

老 : 늙다/而 : 접속사/無 : 없다/妻 : 아내/曰 : 말하다/鰥 : 홀아비/夫 : 지아비, 남편/寡 : 홀어미, 적다/子 : 자식/獨 : 홀몸, 홀로/幼 : 어리다/父 : 아비/孤 : 고아, 외롭다

*네 개의 병렬문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다.

*老而無妻 : 늙고 아내가 없다 또는 늙어서 아내가 없다는 뜻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환과고독(鰥寡孤獨) : 홀아비와 홀어미와 홀몸인 늙은이와 고아를 뜻하는 말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아울러 일컫는 말

*고독(孤獨) : 쓸쓸하고 외로움

해석

늙어서 아내 없는 것을 환(鰥)이라 하고 늙어서 남편 없는 것을 과(寡)라 하고, 늙어서 자식 없는 것을 독(獨)이라 하고, 어려서 아비 없는 것을 고(孤)라고 한다.

義勝利者(의승리자)는 爲治世(위치세)요 利克義者(이극의자)는 爲亂世(위난세)니라.
上(상)이 重義(중의)하면 則義克利(즉의극리)하나 上(상)이 重利(중리)하면 則利克義(즉리극의)니라(『순자(荀子)』).

한자 풀이와 해설

義 : 옳다, 의롭다/勝 : 이기다/利 : 이롭다, 이익/者 : ~것/爲 : 되다/治 : 다스리다/世 : 세상/克 : 이기다/亂 : 어지럽다, 혼란하다/上 : 임금, 윗사람/重 : 무겁다, 중시하다/則 : 곧

*~者 : ~이라는 것

*~則~ : ~하면 ~하다의 조건을 나타내는 말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치세(治世) : 잘 다스려져 태평한 세상

*난세(亂世) : 전쟁이나 무질서 따위로 혼란해진 세상

해석

의(義)가 이(利)를 이기면 치세(治世)가 되고, 이가 의를 이기면 난세(亂世)가 된다. 임금이 의를 중히 여기면 의가 이를 이기고, 임금이 이를 중히 여기면 이가 의를 이긴다.